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19. 12. 27(금),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우정원, 이주희, 신하윤, 정연화, 유제욱, 이민하, 김다연, 남상택, 이정화, 장남수, 송희준	최형석(간사)
불참인원	1	임원정	

### 4. 안건

- 제1호의안: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제2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3호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5. 개회선언

- 가. 이민하 평의원은 참관인 허용을 요구하다. 의장은 명시된 대학평의원회 참석 대상자가 아닌 경우 회의 장소에서 퇴장할 것을 요청하고, 퇴장 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알리다.
- 나. 송희준 평의원은 제도와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참관 허용 여부는 회의 개최 후 대학평의원회 위원들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하고, 회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다.
- 다. 유제욱 평의원은 학생 평의원의 임기가 1년으로 업무 인계의 성격이 있으므로 차기 총학생회장의 참관만 허용할 것을 제안하다. 이주희 평의원은 참관 허용에 동의 의견을 표하되 단, 퇴장 후 절차를 밟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라. 의장은 퇴장 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이민하 평의원의 안건 상정 요청서 및 사전 질의에 대해 회신한 이메일을 전체 평의원들에게 배부 후 설명하다. 학생 평의원수 확대에 대한 요구안은 2019.9.25.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이미 검토, 논의된 내용으로 당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안으로 재상정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안 없이 동일한 내용의 안건 상정 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말하다. 이에 대학평의원회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체 평의원들에게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1/3 이상의 동의가 없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 마. 이민하 평의원은 7, 9월 학생 안건 상정 요청 시에는 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동문평의원 용어 변경 안건 상정 시에도 별도로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 묻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며, 학생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만 온라인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 이유를 질의하다.
- 바. 남상택 평의원은 동문평의원 용어 변경에 대한 건은 본인 임기 전 발의된 안건으로 전체 임원회의를 통해 동의 절차를 거쳐 공문을 송부한 것임을 설명하다. 이민하 평의원은 학생 안건도 계속적으로 요청한 안건이며, 학생 총투표를 거쳐 결정된 건임을 말하다.
- 사. 의장은 학생 요구안이 9월에 이미 논의한 건이고, 구체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정 요청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다
- 아. 장남수 평의원은 의장이 참석 대상자 명단을 호명할 것을 제안하고, 의장은 장남수 평의원의 의견에 따라 호명한 후 참석 대상 외의 인원은 퇴장할 것을 요청하다.
- 자. 이민하 평의원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참관 허용을 요청하고, 유제욱, 신하운 평의원은 차기 총학생회장이 퇴장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하다.
- 차. 참관인 퇴장 후 회의를 재개하다.
- 카. 간사는 임원정 평의원이 업무상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12명 중 11명 참석으로 과반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타.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 파. 의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참관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참관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논의를 진행한다.
- 하. 송희준 평의원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이미 결정된 만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참관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 단, 참관 허용에 대한 관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유제욱 평의원, 이주희 평의원, 남상택 평의원이 차기 총학생회장의 참관 허용에 동의하다. 장남수 평의원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참관 허용에 동의하되 발언권은 없이 자리는 회의테이블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다.
- 거. 의장은 12월 마지막 대학평의원회 회의 시 차기 총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이 원하는 경우 참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너. 이민하 평의원은 2017년부터 차기 총학생회장의 참관이 허용되었고, 2018년에는 예외적으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으나 2019년에도 진전 없이 전체 학생 참관이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다. 더불어 해당 안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다.
- 더. 간사가 차기 총학생회장을 입장시키고 참관하도록 안내하다.

## 6. 안건 자문 및 심의

### 가. 자문사항

#### □ 제1호의안: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자문

(1) 의장은 제1호의안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 자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교 배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료원 배석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장, 목동병원 관리팀장, 서울병원 관리팀장)

(2) 전략기획팀장은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운영 현황 및 계획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보고한 후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3) 이주희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외래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와 목동병원의 의료외수익이 감소한 이유를 질의하다. 서울병원 의료외수익이 작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다.

(4) 전략기획팀장은 서울병원이 예산안 대비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의사수 부족과 수요 예측 기준의 문제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2019학년도 서울병원 본예산안 외래수입 책정 시 목동병원의 외래환자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예측치보다 외래환자수가 적어 기준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2020학년도 예산 책정 시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입원 환자 대비로 예측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말하다. 목동병원 의료외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례식장이 서울병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울병원이 더 좋은 시설, 환경을 갖고 있어 목동병원의 장례식장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외수익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였음을 설명하다. 서울병원의 경우 792병상 운영 및 외래 환자 3~4천명이 확보되어야 부대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는 병상수가 정상 단계에 있지 않아 전년 대비 큰 변동 없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설명하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최대한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임을 말하다.

(5) 송희준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차입금과 그에 따른 부채 구조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6) 목동병원 관리팀장은 서울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차입금,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한 법인 대여로 의료원의 차입금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이라고 답하다. 장기적인 상황계획에 따라 상황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서울병원 건축 차입금에 대한 상황이 시작될 예정으로

2020년 50억원, 2022년에는 100억원 이상 상환 예정이라고 말한다. 현재 시점으로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서울병원의 수익이 조금씩 상승되면서 그 규모에 맞추어 상환하고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히다.

- (7) 유제욱 평의원은 2019학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액이 큰 것을 지적하고, 차입금 규모가 약 500억원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또한 비상경영 상태에서 인건비를 1.8% 인상하고 재료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법인 차입금 총액과 목적 및 1년 이자 상환액이 얼마인지 질의하다.
- (8) 전략기획팀장은 추경예산안에서 차입금이 545억원 증액된 이유로 건물 잔금 452억원, 법인 대여금 추가 84억원, 명예퇴직 실시로 9억원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다. 2019년 본예산에는 서울병원이 204억원 반영되어 있고, 목동병원의 경우 1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병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36억원, 이화감염교육연구센터 6억원, 명예퇴직금 16억원 등 58억원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병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목동병원의 가장 큰 이슈는 중증종합병원으로의 재진입이며, 이를 통해 의료 수입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운영자금으로 배정 받은 금액을 병원 리모델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 (9) 서울병원 관리팀장은 리스장비 예산 700억원 중 현재까지 약 550억원을 실행하고 있고, 5년 분할 상환으로 2019년 추경에는 80억원, 2020년에는 130억원, 2021년에는 140억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이며, 당초 계획하였던 스케줄대로 분할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 (10) 유제욱 평의원은 2020년 이자상환액이 얼마인지 질의하고, 2019년 추경예산안의 증가된 차입금 452억원은 교육부 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확인하다.
- (11) 전략기획팀장은 차입금 452억원은 상대계정으로 지출부 건설중인자산에 동일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교육부 승인 받은 사항이라고 답하다.
- (12) 서울병원 관리팀장은 2020년에 차입금과 원리금 상환액을 2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하고, 차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겠지만 재정 계획 편성 시 2022년부터는 서울병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 (13) 유제욱 평의원은 차입금 210억원 안에 원금 5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서울병원 관리팀장은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다. 전략기획팀장은 고정부채에 은행 장기차입금 51.5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의료외비용 이자비용에 은행차입금 이자와 신규리스 이자, 법인 차입금 이자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 (14) 장남수 평의원은 서울병원 의료진 부족으로 현재 의료진들의 번아웃 문제가 우려된다는 말을 전하며, 의료진 확보 계획 및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질의하다.
- (15)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 개원 시에는 동대문 병원 전공의를 파견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적 규제로 수련 기관이 되지 않으면 파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2019년 개원, 2020년 인증, 인증 후 1년이 지나야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다. 수련 기관이 되면 당해년도에 인턴을 3~4명 선발할 수 있고, 다음 해부터 레지던트를 10명 내외로 선발할 수 있어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고, 이러한 이유로 젊은 의사들이 목동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많이 전보되었다고 말하다. 초기에 의료진을 많이 채용하지 못한 이유로 서울병원 개원 일정이 12월로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에 대한 우려로 중간에 인력 보충을 많이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목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는 의사들을 중환자 전담, 입원전담 전문의 등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다. 또한 전문간호사를 충분히 충원하고, 각 과에서 요청하는 비전임 전문의를 충원하여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 (16) 송희준 평의원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극적 홍보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병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17) 이주희 평의원은 비전임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다.
- (18) 의장은 의료원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 (19)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의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본예산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다. 작년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책정의 방향성 및 주요사항을 기술하고, 3년간의 추이와 계정과목별 비율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음을 설명하다.
- (20) 의장은 의견 반영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평의원들에게 자료 검토 시간 부여 후 자문을 위한 질문을 할 것을 요청하다.
- (21) 이주희 평의원은 2019학년도 기부금 목표액이 119억원이었으나 142억원이 확보되었고, 2020학년도 예산이 131억원으로 책정된 것을 지적하며, 전년도 기부금 수입보다 예산을 낮게 책정한 이유를 질의하다. 또한 기금 인출로 인한 고갈 우려는 없는지, 학관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항목에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22) 송희준 평의원은 내년에도 등록금과 교직원 급여가 동결되는지 질의하다.
- (23) 장남수 평의원은 2018~2020학년도 예산이 7~8% 감소되는 이유를 질의하다.
- (24) 정연화 평의원은 병원 전입금이 2019~2020학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유예를 시켜준 것인지 질의하다.

- (25) 예산팀장은 대외협력처에서 당해 연도 기부금 약정액 및 차년도 약정 수준을 예측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당해 연도 건축 사업과 연계된 기금 인출 규모가 예산 변동의 요인임을 설명하고, 건축 종료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지출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하다. 아울러 학관 리모델링 예산은 연도별 건축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등록금과 인건비는 인상율을 동결로 편성하였고 향후 노사협약에 따른 변동사항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병원 전입금은 의료원의 추경 및 예산과 연동되며,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여야 전입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의료원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다.
- (26) 기획처장은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금인출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부금 액수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예정으로 최대한 기금 보전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 (27) 이주희 평의원은 대외협력처에서 예산 편성 시 약정(예정) 금액 뿐 아니라 그 해의 기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대외협력처에 강력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꼭 전달하겠다고 답하다.
- (28) 이정화 평의원은 학관 리모델링에 2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94억원만 반영되어 있는 이유와 완공 예정일을 질의하다. 기획처장은 총 투입 예산은 약 250억원이 맞으며, 연도별 건축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94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완공 예정일은 2021년 12월 예정임을 답하다.
- (29) 정연화 평의원은 의료원의 전입금에 대한 상황 의무 조건이 있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의료원으로부터 전출계획서를 받아 놓은 상태로 현재는 유예 상황임을 설명하다.
- (30) 이민하 평의원은 2020학년도 특정목적기금 인출 사용 내역 중 수영장 용도 변경 관련 공사 6억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은 수영장 개보수 관련건으로 관리처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하다.
- (31) 의장은 2019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나. 심의 사항

### □ 제2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는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2) 의장은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전환 및 정원조정은 학내 많은 논의와 진통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설명하다.
- (3) 신하윤 평의원은 이공계열에서 정원을 줄여야 하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2022학년도에는 인문사회계열을 조정한 후 2024학년도에 회복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었음을 말하다.
- (4) 간사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단위씩 편제 및 정원 조정 결과를 학칙에 반영하는데 반해 이번 학칙 개정안에는 2024학년도까지의 편제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5) 간사는 대학원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6) 의장은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원의 전공별 특성이 다양하여 학부보다 더 유연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다.
- (7) 송희준 평의원은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제도 요건의 평균성적 기준이 3.0인 이유와 학점 기준, 일반대학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다.
- (8) 간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이 변경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은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직된 학사구조가 아닌 전공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다. 또한 대체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학점 기준은 9학점이라고 답하다.
- (9) 김다연 평의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세부사항은 어디서 결정하는지를 질의하고, 간사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전공(학과)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답하다.
- (10) 의장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답하여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다. 기타사항

□ 제3호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1) 의장은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개방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오늘 대학평의회 회의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학평의회 추천 위원 3인을 선출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 (2) 의장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다.
- (3) 유제욱 평의원은 자천타천의 방식을 제안하고, 송희준 평의원은 자천타천으로 5명을 정한 후 최종 3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다.
- (4) 이민하 평의원은 대학평의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반해 그동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는 학생 위원이 없었으므로 다양한 구성 단위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5) 이정화 평의원은 무기명으로 각자 3명을 뽑는 방식을 제안하고, 사임하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사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 (6) 의장은 투표 용지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3명을 표시하고, 다수 득표자 3명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투표를 진행한다. 단, 3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며, 금일 회의 불참자도 추천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다.
- (7) 참석 평의원 11명의 직접·비밀투표를 진행하고, 이정화 평의원 및 간사가 개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의장은 투표 결과 신하윤, 우정원, 이주희(가나다 순) 평의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자문 및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9년 12월 27일

의 장 우 정 원

